

# “그날의 전조등 다시 켜고 도청으로 갑시다!”

5·18공로자회 주관 ‘민주기사의 날’

1980년 5월20일 차량 시위 재현  
기아챔피언스필드서 옛 도청까지  
택시 등 50여대 4.6km 도심 행진

“전남도청을 향해 전진했던 기사들의 차량 시위는 절망에 빠졌던 광주공동체에 거대한 희망의 불꽃을 지핀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민주기사들이여, 그날의 전조등을 다시 켜고 도청으로 갑시다!”

20일 오후 3시에 광주 북구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후문 인근 도로에는 보닛 위나 차량 앞에 태극기를 단 택시 등 차량 50여대가 도열해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지만 우비 차림의 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량 밖으로 나왔다.

잠시 후 국민의례로 시작된 행사는 46년 전 이날 신군부에 저항하던 시민들을 돕기 위해 택시와 버스 등 차량 200여대가 헤드라이트를 켜 채 전남도청으로 향했던 행렬을 재현하는 ‘민주기사의 날’이다.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주·주관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한 올해 민주기사의 날에는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과 오월 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함께했다.



20일 오후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 앞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차량 시위를 재현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조영권 기자

민주기사의 날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결집시킨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86년부터 운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재현 행사가 진행돼 왔다.

국민의례 후 이어진 기념사에서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물의를 일으킨 ‘탱크데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은 “탱크

데이 논란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민중을 짓밟았던 불의의 상징인 탱크를 5·18과 연결 지어 마케팅이나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행태는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유공자와 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만행’이라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념사를 통해 밝혔다.

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민주기사는 전국민주택시 인천지역본부 정승욱 위원장, 강원지역본부 김길범 강원본부장, 광주지역본부 함명록 위원장 등 3명이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 도로 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은 주먹을 꼭 쥐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오월 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제창을 마친 후 민주기사들은 각자의 차량에 올라탔고, 1980년 5월 당시 주로 운행했던 초록색·노란색의 택시 뒤를 따라갔다.

비구름의 영향에 다소 어두컴컴했던 도로를 전조등으로 밝힌 차량 행렬은 광주역을 지나 금남로로 향했고 옛 전남도청까지 약 4.6km를 행진한 후 해산했다.

당시 차량 시위에 참여했던 장훈명(74)씨는 “46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서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챔피언스필드 일대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우리 택시 기사들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을 많은 시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연상 기자

## ‘5·18 폼페이’ 스타벅스... ‘신세계그룹 책임론’ 확산

광주·서울서 정용진 회장 행사 고발  
시민단체, 광주 백화점 앞 피켓시위  
한달간 ‘연대행동’... “회장 사퇴·불매”

5·18민주화운동 폼페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로 모(母)회사인 신세계그룹의 책임론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행사 고발까지 잇따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10여명은 20일 오후 2시 광주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비극적인 사건을 결합해 자사의 텀블러를 파는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번 사태를 접하며 가슴에 묻어둔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기업의 해프닝으로 가볍게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최초 작성자부터 결재 라인, 최고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우산을 발로 밟아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도 이날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접수 받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 취지에 대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선사수광

주전남시민연대는 같은 날 오전 9시40분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신세계백화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어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모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랫선 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정용진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예정된 ‘오월을 사랑하는모임’의 집회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오월을 사랑하는모임은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약 한달간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21일 오후 1시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맞닿아 있는 이마트 광주점의 정문 앞에서 탱크데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협의회는 “정 회장 사퇴와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에서 스타벅스의 완전한 퇴출까지 각오한 거대한 시민적 저항을



20일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국민권선사수광주전남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신세계그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연상 기자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체도 “정 회장의 경영 일선 후퇴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 대국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 끝까지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서형우·이연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